

[서울시NPO지원센터 미트쉐어 콘텐츠]

나와 우리,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너와 나의 연결 고리

- 다양한 전시회, 강연, 문화 활동들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사회적의미를 알아보고 함께 토론하는 모임

- 함께함(협동)의 의미찾기, 시민들과 시민단체와의 연결고리 찾기,
다양한 사회문제와 현상에 대해 토론하고 개인적 경험 공유하기

너와나의연결고리
: 로이터 사진전과 언론의 역할

1. 모임소개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다양한 문화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현상에 대해 토론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모임을 통해 시민들간(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찾으며 협동하는 한편, 시민들과 시민단체와의 연결고리, 시민들과 다양한 사회문제·현상과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려 합니다.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며 모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1 : 로이터 사진전과 언론의 역할

- 1) 일시 : 7월 9일 (토) 14:00
- 2)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3) 내용
 - 로이터 사진전 참여하기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토론하기 : 한국사회의 언론보도와 언론의 역할 (카페)
 - 공유하기 : 언론감시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활동공유 “민주언론시민연합” (식당)



2. 활동내용 공유

1) 로이터사진전 관람 후기

① 로이터사진전 관람정보

REUTERS, 세상의 드라마를 기록하다 <로이터사진전>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에서 2016년 6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 시간은 11:00~20:00(입장마감 19:00)입니다. 관람요금은 성인 13,000원, 청소년 10,000원, 어린이는 8,000원입니다.



② 로이터사진전 개요

로이터통신사는 세계 3대 통신사의 하나입니다. 뉴스통신사란 속보 뉴스 등을 신속하게 취재하여 전 세계 언론 매체들에게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1851년 폴 율리우스 로이터가 설립한 뉴스제공 기업입니다. 비둘기나 당시로선 획기적인 영불(영국-프랑스)해협 해저 케이블을 사용해 파리와 런던의 주식, 금융 정보를 각지에 송신하였습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링컨 저격 등을 최초로 보도하면서 대표적 통신사로서 성장하였고, 1-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신속, 정확, 공정이라는 3대 원칙을 지키며 언론의 독립성과 진실 보도를 추구하였습니다. 2007년 캐나다의 정보서비스 기업인 톰슨사에 합병되었고, 세계 200여곳에 지국을 두고 16개 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 정보와 사진 부문의 경쟁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¹⁾

로이터 본사의 협조로 준비된 이번 전시는 600여 명의 로이터 소속기자가 매일 1600여 장씩 제공한 사진들과 로이터사가 보유한 1300만 장 이상의 아카이브 자료 가운데서 엄선한 450여점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대규모 기획전이라고 합니다. 기자의 눈으로 포착한 세계 각지의 현장 사진들을 통해 로이터만의 개성 있는 보도사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도 사진기자로서 사실 전달이라는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지만, 사진가로서 자신의 세계관을 투영시키는 의미 있는 사진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²⁾



1) 한겨레 GALLERY vol4 2-3p

2) 호정은 큐레이터, 한겨레 GALLERY 2면

③ 관람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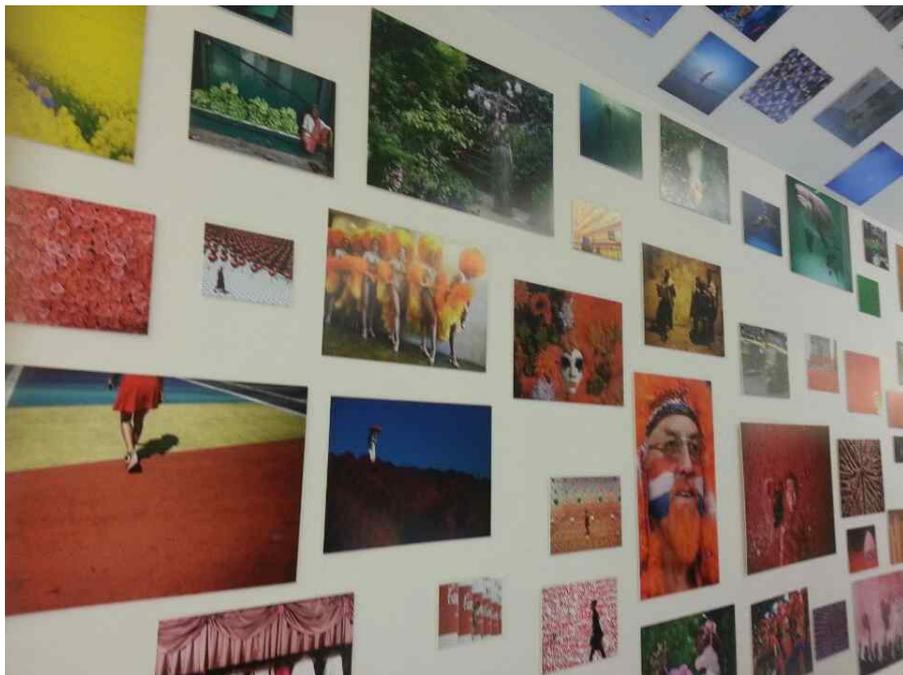
약속시간에 모여 함께 티켓팅을 하고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관람에 앞서 서로가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라 관람객들이 많아 10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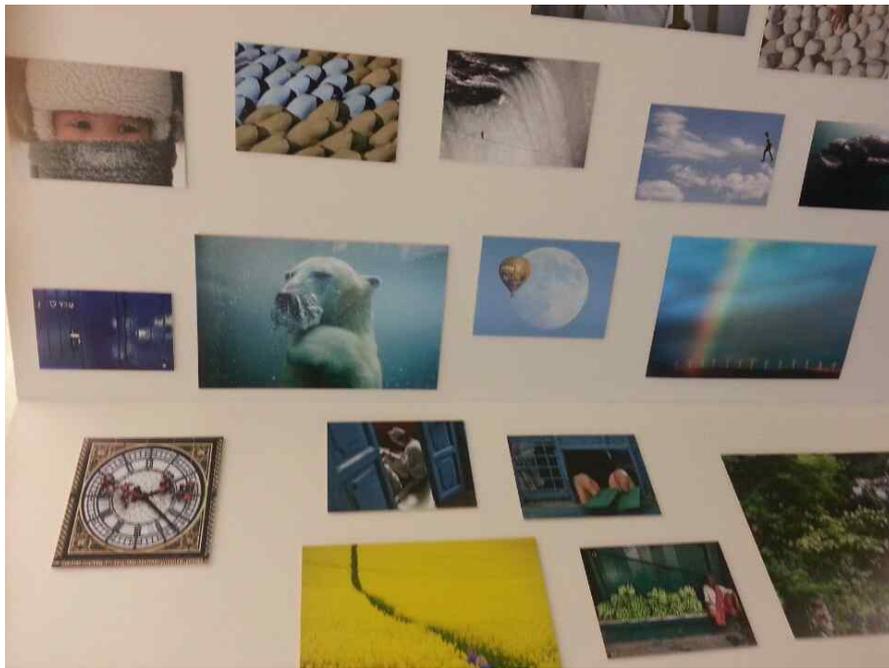
로이터사진전은 입구에 들어서면 1. 로이터의 역사를 보여주는 Reuters Classic(클래식), 2. 인간의 감정에 치중한 Emotion(감성), 3. 세상의 유쾌하고 재미난 일들을 보여주는 Unique(유니크), 4. 인간과 공생하며 세상의 드라마를 만드는 구성원인 자연과 동물의 세계, 그 속에서 저마다의 문화유산을 만드는 인류의 삶을 보여주는 Travel on Earth(지구별 여행), 5. 생생한 현장감이 살아 있는 Reality(현실), 6. 우리 삶 주변에서 접하는 사회 문제들을 다룬 Spotlight(사회 현안), 7. 그리고 휴머니즘이 깃든 Epilogue(에필로그)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이터사진전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하게 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따라 전시된 사진들이 주는 메시지와 개성들이 각양각색이라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로이터의 역사를 보여주는 클래식 구역에서는 세계대전의 현장속에 나 자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인간의 감정에 치중한 감성 섹터에서는 인간의 감정표현에 집중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그 안에 있는 인물의 감정을 너무나 잘 표현해 낸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유니크에서는 세상의 재미나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보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

나지 않았습니다. 지구별 여행 섹터에서는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고, 생생한 현장감을 표현한 현실섹터에서는 국제적 분쟁과 사회이슈들로 구성된 보도사진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특히 생사의 기로에서 겨우 살아남아 스페인 해변에 도착한 난민이 기어가는 모습 뒤로 스페인 현지인들이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난민문제의 현실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관람 후 함께 도록을 보며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 인상 깊었던 사진들을 공유했고, 마음에 들었던 사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상 깊은 사진으로는 지구별 여행 섹터

에 있던 오로라 사진과 이집트 사막 밤하늘 사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해변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도사진이 사회적 이슈와 현안의 문제를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 언론의 역할 : 한국의 언론보도와 언론의 역할,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① 참가자들이 느끼는 한국의 언론보도

우리는 모여 한국의 언론보도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최근에 모 언론에서는 성주의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투쟁에 외부 시위꾼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 성주의 주민들이 전문시위꾼들에 의해 선동당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종편의 프로그램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끄는 것으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편향된 패널들을 섭외해 한쪽만의 의견을 내보내거나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모임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며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의 필요성에 큰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연스럽게 언론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겨레신문의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종편 모니터링 프로젝트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종편 보도의 심각성을 모임에 참여한 참가자들 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활동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기회가 된다면 상근 활동가와의 만남까지 기획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소개³⁾

(1) 명칭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
(2) 단체내역	1984. 12. 19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창립 (재야언론운동 단체) 1998. 01. 06 (사단법인)민주언론운동협의회 1998. 03. 27 (사단법인)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명칭개정) 2006. 03. 24 (사단법인)민주언론시민연합(명칭개정)
(3) 주소	(0420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4가길 10 동아빌딩 4층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전화 (02)392-0181/ 전송 (02)392-3722, 홈페이지 www.ccdm.or.kr
(4) 조직규모	회원 1,300명 / 언론학교 동우회원 7,000여명
(5) 조직현황 및 임원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이사장> 고승우 <이사> 김경실, 김동민, 김서중, 김성원, 김연경, 김유진, 김은규, 김은주, 김택수, 김현식, 박우정, 신태섭, 이계숙, 이용성, 임재경, 장해랑, 전미희, 전영일, 정동익, 정연구, 정연우, 현상윤(가나다순) ▷ 공동대표 이완기, 박석운 ▷ 운영위원회 공동대표,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편집위원장 ▷ 감사 : 강수곤(회계), 조룡상(업무) ▷ 고문 김태진, 신홍범, 윤희식, 이명순, 임재경, 정동익(가나다순)

3)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http://www.ccdm.or.kr/001_intro/intro_01.asp

▷ 지도위원

권근술, 금동혁, 김명걸, 김선주, 김판수, 노경래, 박충렬, 윤후상, 이부영, 이원섭, 이종욱, 임채정, 정영일, 정태춘, 조양진, 조학래, 지영선, 채 백, 최학래, 허 욱

▷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서중

▷ 편집위원회<위원장> 김은규

▷ 사 무 처

- <사무처장> 김언경
- <협동사무처장> 조영수
- <기획부장> 유민지
- <방송모니터> 이불우
- <신문모니터> 배나은

▷ 모니터위원회

- 신문모니터위원회
- 방송모니터위원회

▷ 회원모임

- 노래모임
- 동영상모임

(6) 활동목표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 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주요사업

- ① 대국민 언론교육 : '언론학교', '글쓰기강좌', '대학언론강좌', '사진강좌' 등
- ② 언론모니터 : 신문, 방송 모니터, 인터넷모니터링 등
- ③ 선전홍보 : <시민과 언론>, <회원통신> 등 회지 발간, 언론교육자료집, 모니터자료집, 언론관련 문헌 발간사업
- ④ 조사연구 : 언론제반 및 시민언론운동 관련 조사연구, 토론회 개최 등
- ⑤ 연대사업 : 언론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지역 민연련과의 연대 강화 등

(8) 활동성과

①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개

91년 처음 문을 연 이래 현재 84기까지 진행된[언론학교]는 명실상부한 언론교육 프로그램으로 1년에 4회씩 상설화, 매회 60여명의 일반 시민들이 참여,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학교를 통해 배출된 수강생은 7천여명이 되는데, 졸업 후 우리 단체 회원으로 가입해 모니터를 비롯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의 각 분야에서 언론의 중요성과 더불어 수용자주권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시민이 양질의 정보를 생산,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사회의 다양한 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한 [글쓰기 강좌], 대학언론인 및 예비언론인의 실무능력 배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학언론강좌] 등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 ② 올바른 언론의 위상확립을 위한 언론감시활동 강화
92년부터 시작된 모니터활동은 92년 총선 대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95년 지방선거 때 [선거방송대책본부], 96년 총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등의 활동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국내 단체 중 최초로 신문모니터 활동을 시작한 것을 비롯, 방송모니터의 경우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등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일상 모니터를 적극 개척해 '텔레비전방송의 보도프로그램'을 전담하는 등 모니터영역을 확대하기도 했다.
- ③ 시민언론운동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조직활동력 강화
언론교육 프로그램이 정착되면서 시민언론운동 영역에 적극 뛰어들 본회는 언론에 관심이 큰 시민들을 주요 활동역량으로 수용해 시민언론운동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수용자운동을 한단계 높혀나가고 있다.
- ④ 수용자운동 조직화를 통한 시민의 참여의식 함양
(9) 연대활동
 - 종편국민감시단
 -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과 박근혜 정부의 수사방해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 친일독재미화뉴라이트교과서검정무효화국민네트워크
 -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3) 향후 모임계획 토론

우리는 향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진행할지 식사를 하며 토론을 했습니다. 요즘 커뮤니티 사이트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혐오와 차별, 페미니즘 등의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이 어떨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이 문제에 대한 개괄적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성별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마련과 발전적 방향으로의 논의가 전개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향후 모임계획은 조금 더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